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화룡편]

붉은 해 변강 비추고 당을 향한 주선률 노래



외지에서 온 건축팀이 화룡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일전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하자' 집중조사연구 취재팀은 화룡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화룡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은 화룡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하고 당의 지도적 역할 깊이 인식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은 총서기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일심전력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단결진보와 향촌진흥의 길에서 기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 촌은 또 제8차 전 성 민족단결진보 시범구 시범단위이자 연변의 첫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 실천기지이기도 하다.

촌에서는 '감은분진, 붉은 마음 당을 향해'를 주제로 홍색교양, 문화체험, 관광휴가, 무형문화 전승을 일체화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 체험구를 건설했는데 체험구에는 해양강만, 논밭, 농경체험구, 촌력사관, 신촌민위원회, 민속체험구, 단결광장 등 7개 부분이 포함되었다. 체험구는 해설, 실물전시, 현장체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총서기가 광동촌을 시찰한 후 이 촌에서 일어난 천지개벽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광동촌 촌력사관에서 연변광동촌조선족민족관광봉사유한회사 부총경리 장회령은 "다년간 광동촌은 전 촌의 촌민들을 인솔해 '기업+촌집체+촌민'의 모식으로 제3산업으로 제2산업을 견인하고 제1산업을 촉진하면서 세가지 산업이 심층적으로 융합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는데 이런 혁신적인

발전 모식은 촌의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득 증대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광동촌 촌력사관은 광동촌이 기층당조직 건설, 빈곤퇴치 난관공략, 향촌진흥, 민족단결, 주거환경 개선, 농업발전 등 면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로 하여금 지난날을 회억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체험 과정에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하고 당의 강력한 지도적 역할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소학교 꼬마해설원

◆ 홍색문화로 홍색정신 실천하고 홍색유전자 전승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소학교에 들어서면 8개의 대형 영렬보가 커다랗게 세워져있고 영렬들의 영웅사적이 상세

히 새겨져있다. 교수청사의 복도마다에는 이 학교 사생들이 자체로 제작한 애국 주제의 그림과 서예작품, 도자기 공예품들이 걸려있고 당사, 민족단결, 영렬이야기 등 주제로 선전란이 다양하게 꾸며져있다.

이 학교에서는 '명훈주조'에 초점을 두고 홍색문화를 각종 수업에 융합시켜 학생들이 홍색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내에 홍색교양 전시장을 건설하고 일련의 홍색수업을 개설했으며 동아리 실천, 교정실천, 사회실천 등 종합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여러 민

하고 있으며 홍색그림 그리기, 홍색시 낭송, 홍색영화 감상하기 등 일련의 계열 활동에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 요소를 융합시켜 학생들이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소학교 당지부 서기 겸 교장인 한문과는 "학교에서는 홍색문화를 특색으로,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홍색주제문화와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교육과 덕육의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구체적이고 립체적이며 풍대적인 다양한 형식으로 '다섯가지 융합' 사업법을 꾸준히 혁신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 시범학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웅정신으로 공동체 리념 더욱 확고히 수립

화룡시는 최근년간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명훈주조, 문화침윤, 흥변부민, 상감식 교류융합, 변강안정을 보장하는 '5대 공경'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면서 '붉은 해 변강 비추고 화룡인민의 마음 당을 향하는' 주선률을 높이 올리고 있다.

2023년 9월에 건설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소학교 애국주의교양, 혁명문화교양, 민족단결교양을 일체화한 종합형 개방식 기념관으로 영렬전시관, 상용문화광장, 려사릉에서 세계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길림성 제1진 영웅렬사전시관이자 연변의 제1진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인 이 전시관은 사진전시, 실물전시, 해설을 결부하는 형식으로 '영웅렬사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에 충성하자'를 주제로 이 지역의 혁명력사와 혁명선열들이 중화민족 해방과 새중국 창건을 위해 싸운 위대한 공적들을 상세하게 전시해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영웅을 추모하고 영웅정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리념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료해 따르면 지금까지 화룡시에서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소학교를 포함한 3개의 견학중심을 건설해 견학활동을 291차례 조직하였는데 참여 인원이 6,400여명에 달했으며 지난 7월 19일 가동된 '1핵8익'광동촌실천기지는 연 3,300여명이 찾았다. 이처럼 화룡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자부심을 제고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김영화기자

우리 나라 저고도 경제, 기술혁신 등에 업고 '비상'

우리 나라 저고도 경제가 때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얼마전 강소성 소주시 양징호에서 올해 민물대개 조업이 정식 시작됐다. 현장에서 잡힌 대개는 수품그룹의 풍익드론을 통해 운송된다. 룽로를 통하면 교통 체증이 없이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지만 드론을 리용할 경우 빠르면 4분 만에 수품 양징호 경유지에 도착한다.

이는 우리 나라 저고도 경제(低空经济) 발전의 축소판이다. 올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책들이 집중 출범하면서 응용 씨나리오가 꾸준히 확대됐다. 저고도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만 해도 수만개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미래 산업 규모가 1조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고도 경제는 민간 유인, 무인 주행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융합 발전을 이끄는 포괄적인 경제형태를 말한다. 저고도 공역은 일반적으로 지면 수직거리가 1,000미터 이내인 공간 범위에 해당한다.

안휘성의 경우 10여년간 드론산업을 지원하는 저고도산업집군을 기본적으로 형성했으며 300개 이상의 기업이 이곳에 모여있다. 지난해 안휘의 관련 산업 규모는 450억으로 중국의 약 9%를 차지했다.

그중 합비, 무호 등 지역은 드론 우편 물류 항공 로선 20개를 개통했고 올해 여름 황산, 룽안 등 지역에서 헬리콥터 저고도 관광을 체험한 인원은 1만명(연인원) 이상에 달했다. 황산풍경구는 매일 드론을 리용해 2톤이 넘는 물자를 운송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저고도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히 신에너지, 자율주행, 선진 항공 제조 등 분야의 기술혁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 물류 배송, 도시간 통근, 원격

탐지 등 응용 씨나리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 비용 절감과 효율 증대, 상업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휘성 부성장 리중은 지난 26일 열린 '글로벌 지속가능 교통 고위급 포럼'(GSTF)에서 우리 나라 저고도 경제는 집중 혁신 및 고속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와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중국민용항공국(CAAC, 이하 '민항국') 국장 송지용도 저고도 경제는 무인화, 지능화, 협동화, 녹색화 방향으로 한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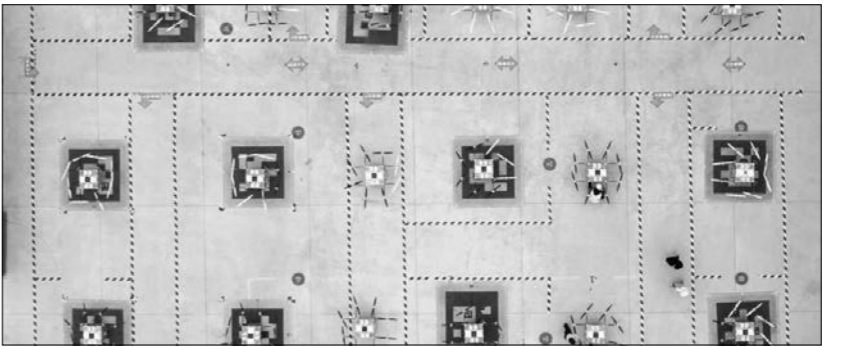
민항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저고도 경제 규모는 5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오는 2030년에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관객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저고도 분야에 뛰어들어 기업수도 날따라 늘고 있다.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인 천안사(天眼查) 전문판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의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은 6만 9,000개에 넘는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기업은 9,000여개로 2022년 대비 38.5% 증가했다. 올해는 6,200개에 넘는 관련 기업이 신설됐다.

수품그룹 산하 드론 물류 기업 풍익기술이 만든 풍익드론은 고원, 산지 등 모든 지형을 커버한다. 택배 배송, 도시내 급송, 긴급구조, 의료 운송, 신선 풀드체인 등 전체 씨나리오를 기반으로 상시화,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기준 전국에 개통된 풍익드론의 항공 로선은 총 518개로 집계됐다. 풍익기술은 향후 심수를 중심으로 광동, 향항, 오문, 대만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저고도 드론 물류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대만구 2시간 물류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 신화사



심수시 보안구에 위치한 풍익드론운영센터

보상교환판매 신에너지차 하향활동 연결서

2024년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및 신에너지차 하향활동—연변역 행사 가 9월 27일부터 이를 동안 연결서 있었다.

이번 활동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출생 리념을 향촌에 인입하고 대중들에게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현장에서 대중들은 몸소 신에너지차 시승 체험을 하기도 했다.

20여개 자동차 제조회사의 48대의 신에너지차가 이번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야디, 문계, 리

상 등 신에너지차 브랜드는 물론 BMW, 아우디, 벤츠 등 호화 연료차 제조회사에서도 여러 가격대의 신에너지차를 출시하면서 환경보호와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전에 가세했다.

주최측은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신에너지차는 모두 향촌 도로의 주행에 적합하고 대중들의 보편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선별했다. 미니전기차는 물론 소형 승용차와 SUV로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김영화기자

디지털화 물결 타고 급성장한 문화 새 업종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 업종이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새중국 75년 경제사회발전 성취 시리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2022년 문화산업 매출 증가에 대한 신흥 문화 업종의 기여율은 49.8%에 달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흥 문화산업의 특징이 뚜렷한 16개 소분류 업종의 매출은 2012년의 6,439억원에서 2022년에는 5조 106억원으로 뛰어올라 년평균 2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신흥 문화 업종이 전체 문화 및 관련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

년의 8.3%에서 2022년에는 30.3%로 확대됐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공연, 디지털 출판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흥 문화 업종은 문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인터넷 음원 프로그램, 숏폼(短视频)의 신규 업로드량(시간 기준)은 전년 대비 각각 160.9%, 32.7%, 5.5% 증가했다. 중국 인터넷 동영상 및 음원 연간 유료 사용자수는 각각 7억 3,000만명, 1억 8,000만명이며 숏폼 업로드 사용자수는 7억 5,000만명을 넘어섰다.

/ 신화사



화룡시 중화민족공동체역사 박물관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 일각